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조현숙 목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구원의 초청 (요 3 : 16-18)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기쁜 소리 들리니"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구원의 방주인 교회" (창세기 6:13-22)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전에 노아에게 대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노아의 방주의 구조의 특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방주의 첫 번째 특징은 넉넉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 길이가 축구 경기장의 1.5 배되는 150m 입니다. 기차 화물차량 522 대의 용적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종류대로 모든 동물이 들어가고 음식을 충분히 실어도 넉넉할 정도로 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넉넉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라는 방주에 탄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다 물로 멸망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는 노아의 방주는 넉넉했지만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입니다. 사도행전 4:12 절에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선장이 없고 키가 없습니다. 돛대도, 노도, 운전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선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맡기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가 홍수에도 좌초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라랏 산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 인생의 방주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아라랏 산에 도착해서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목적에 바탕을 두고 세워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삶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점심식사** -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됩니다.
3. **부장모임** - 4월 10일 주일예배후 부장모임이 있습니다.
4. **성금요예배** - 성 금요예배가 4월 15일 7:30분에 있습니다
5. **부활절 예배** - 4월 17일 부활절 예배는 총동원 주일로 한영예배로 드립니다.
6. **릴레이 금식기도** - 부활절 총동원 예배와 교회를 위한 한달간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7. **초원모임** - 초원모임이 4.24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4/10	4/17	4/24	5/01
대표기도	조현숙	유영민	심영민	김영란
헌화성도	김현옥	이강선	이은진	오상균
봉사당번	동지목장	섬김목장	나눔목장	살롬목장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3,565.00	

행사 및 모임

4 월	고난주간특별기도회	4 월 13-16 일(수-토)
	부활절예배	4 월 17 일(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믿음목장				
나눔목장				
섬김목장				
동트는목장				
등지목장				
따스한목장				
살롬목장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믿음목장	김정숙	510. 414-8198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동트는목장	홍지원	650. 554-9993	박완주(헝가리집시)
등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봄의 따스함처럼

주변을 보면 아직 차가운 기운을 아침 저녁에 느끼지만 모든 나무에 새 싹이 이제는 무성하게 솟아 있고 봄꽃들이 만연하게 피어난 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어릴 적 한국에서의 봄은 녹아 내리는 것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끽 끽 얼어 붙었던 동네 개울의 얼음이 녹아 얼음 덩어리가 점차 깨어져 나가고 개울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보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게 얼어 붙어 딱딱하던 논 밭의 땅이 물기를 머물며 부드러워져서 그 땅에서 작은 새싹들과 봄 나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봄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의 계절은 얼었던 땅과 강을 녹입니다. 봄이오면 나무에, 온 대지에 새싹이 솟아 올라 온통 파랗게, 노랗게, 하얗게 아름다운 꽃과 색깔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봄이 오는 변화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변함없이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새로운 변화를 아름답게 일으킵니다.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진정 봄이 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왜 그리 얼어 붙은 것들이 풀지 못하는지, 왜 새싹과 꽃을 못 피우는지, 왜 그렇게 차갑고 딱딱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신동욱 앵커의 시선'이라는 뉴스 속에 우리 한국이 OECD 37 개국 나라 중에 사회적 유대 지수,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가는 관계 지수가 꼴찌인 37 위라고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옛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기로 소문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비록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이해하고, 함께 하는 아름다운 덕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래 산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한국을 보고 느낀 점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이름만으로도 우리 나라가 변화된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라는 말이 웬지 마음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비록 적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해도 기쁨이 있는 삶, 따스함이 있는 삶, 포용하고 사랑함으로 행복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겨울에 끽 끽 얼었던 온 세상이 봄이 옴으로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풀어져 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 봉우리를 맺듯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Edison&Danielle	408-807-7962	edisontung@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따스한목장:김영란목사	믿음목장: 김정숙목사
나눔목장:유영민목사	동트는목장:홍지원목사	샬롬목장: 조현숙목사
둥지목장:이화선목사		

교회약도

